

영상  
부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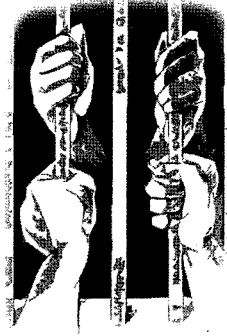
## 설익은 자유

다큐멘터리 / 8분 6초

### 기획의도

현재의 우리 어린이들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들어 보고 현재의 서대문 형무소를 과거 일제시대 때는 감옥으로 사용 하였으니 그 당시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고마운 마음(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을 느껴보도록 하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이라크와 미국의 관계, 우리나라의 처지를 오경 애(고마리)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싶도록 인터뷰를 시도했다.



## 시놉시스

어린이가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성  
저초등학교 4학년 김태경어린이를 통해 알아보고 일제시대의  
무시무시한 감옥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간다 그리고 형무소의 체  
험관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소감을 잠깐 들어본다. 그다음 고마리  
선생님을 만나 이라크와 미국에 현재 상황과 소파협정에 대해 어  
린이들이 이해하기 싶도록 인터뷰를 시도했다. 또한 촬영자의 친  
구와 그 형에게 이라크와 미국에 관해 잠시 들어본다.

## 부마항쟁 그리고 그 후

다큐멘터리 / 12분

### 기획의도

유신독재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 시민항쟁이었던 부마항쟁의 시발점이 부산임을 알리고 현장취재, 인터뷰, 참고자료 활용으로 그들의 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또한 조직적 지도부 없이 오로지 민중적 주체에 대한 시위였던 부마항쟁이 오늘날 어떤 모습의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 시놉시스

### 도입

- 딱딱하게 보이기 쉬운 민주화 운동(부마항쟁)을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화면을 활용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

### 전개

- 당시 시대적 상황 및 증언을 통해 항쟁이 일어났던 모습과 장소를 과거와 현재의 자료로 병행하여 보여 줌으로써 그 시대 상황을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한다.

### 결말

-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부마항쟁의 참다운 의미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바뀌어져 온 시위문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겨 본다.

# Do it yourself

---

드라마 / 14분

## 기획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모두가 '어른' 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세상에 첫발을 내 디는 순간 혹독한 현실에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간다' 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한 번쯤은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주민등록증이라는 소재로 고민하는 어느 청소년이 세상의 앞에 서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았던 아버지에게 그 해답을 듣는 모습을 그릴 것이다.

하지만 영화에 답은 없다. 이 답은 해답이라는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어떻게 찾느냐' 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시놉시스

18살 생일을 맞이한 형우는 주민등록발급증을 우편으로 받는다. 어른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친구들과는 달리 형우는 '어른' 이라는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한다. 그러던 중 형우는 아버지의 사진들을 보며 아버지에게도 자신과 같은 시절이 있었음을 느끼게 되고 그런 형우를 본 아버지는 형우를 포장마차로 데려간다.

# 개구리와 닭에 관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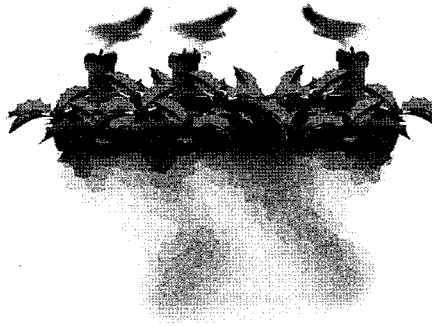
---

극영화 / 7분

## 기획의도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수배해제 조치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고 있는 듯하지만 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대학 내의 학생회 조직과 학생 구성원 간의 거리역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에 대한 해결 이전에 자각이 필요했다. 내외적인 혼란과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상황을 개구리와 닭으로 비유해 보았다.





## 시놉시스

재현은 수배상태에 있는 친구 동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어느날 동진은 검거되고 친구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재현, 그러나 아직 친구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수 없다.

# 별이 잠드는 방

---

실험영화 / 9분 22초

## 기획의도

우리 사회에서 흔히 문젯거리로 야기되고 있는 낙태를 새로운 시각의 실험적 영상에 담아보려 노력했다.

영상에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었다.

다른 공간과 다른 움직임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소품과 세트, 편집 등을 새롭게 시도했다.



## 시놉시스

심장고동소리가 들리는 방 안에서 별과 함께 살고 있는 아이.  
어두운 곳.

사방이 붉은 방안에 한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있다.

그 방 안에서 아이는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낸다.

어느날, 방 안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아이에게 시끄러운 기계소음과 함께 외부의 무언가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방이 흔들린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방이 심하게 흔들린다.

아이의 겁에 질려 방구석으로 슬금슬금 도망간다. 저쪽 벽에 작은 구멍이 생긴다

작은 구멍에서 뿔족한 가위가 들어온다.